한은 통화신용보고서 2題

❶ 신흥국 경기개선에 외국인 채권자금 53억달러 이탈

1월 52.9억 달러 빠져나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유출
국내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
불확실성에 모니터링 강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뉴시스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조정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 2020~2021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채권자금은 지난해 1월 약 53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7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1월 52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월간기준 역대 최대치다.

한은은 유출규모가 확대된 이유로 ▲해외공공기관 투자여력 약화 ▲신흥국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금융시장 차익거래유인 축소 ▲단기차익 실현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자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관측됐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에 따라 국가별 투자비중을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채권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된 점도 채권자금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외국인 채권투자자는 미 달러화를 담보로 외환(FX) 스와프 시장에서 원화를 빌려 채권에 투자한다. 최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는 양호한 달러 유동성으로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줄었고 일부 만기에서는 차익거래 유인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기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차익 거래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불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23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1.25%포인트(p)까지 벌어졌음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공공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되고, 차익거래 유인도 다시 확대되면서 공공 및 민간기관의 국내채권 투자가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권자금은 글로벌 물가와 성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❷ 고금리發 주택가격 추가하락 예상… 비은행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값 하락
호황기 갭투자로 임차인 리스크 ⬆
고위험 PF 사업 부실 현실화 땐
비은행 금융사 자본적정성 등 저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올해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떨어지면, 호황기 갭투자로 전세를 준 주택은 임대보증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됐지만 이후 소득, 투자가치 등이 괴리되면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9월부터 상승하다 2021년 말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한국은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의 기대심리는 높은 지속성을 가졌는데, 하락기대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물량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을 더 낮춘다. 또 주택가격이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져 임차인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갭투자 주택가운데 40%는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을 밑돈다.

또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와 자금을 공급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분양시장 여건을 보면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와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 대출 기피 등으로 사업지연·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완공 전 사업장도 미분양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상장종합건설사 주가에 내재된 예상부도확률이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신용위주의 차주로 구성돼 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위 험노출금액)와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출비중이 몰려 있다.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높아진 불확실성에 기업결합 2년 연속 1000건 돌파

비계열사 간 결합은 17.7% ⬇
계열사간 결합건은 18.9% ⬆
IT·바이오 분야 인수합병 활발

지난해 기업결합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으나,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도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지만,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감소한 반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크게 증가했다. 위드코로나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1027건,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2021년) 대비 86건(-7.7%), 기업결합 규모는 23조5000억원(-6.7%) 감소했다.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 소폭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나,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으로 17.8% 수준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건수와 규모는 각각 8.2%, 10.1% 줄었다.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7.3% 감소했지만, 기업결합 규모는 12.5%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와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47.6%, 96.3% 급감했다.

특히,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건(+18.9%), 기업결합 규모는 2조3000억원(+21.3%)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성장동력 확보의 미를 갖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과 규모는 각각 125건(-17.7%), 9조원(-16.8%)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63건(18.6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의 각각 30.0%, 3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12.9%), 규모(-44.1%) 모두 감소한 수준이다.

전년에 이어 SK의 기업결합 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한화(각 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6건), 롯데(6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다.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51건으로 전체 건수의 14.7% 수준이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다만, 전년 대비 건수(-5.0%), 규모(-5.9%)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0건이었고, 미국·싱가포르(각7건), 영국(6건), 중국(5건), 일본(4건) 순으로 국내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3%(342건), 서비스업이 685건(66.7%)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IT나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 배달·택배 등을 위한 종이 상자·용기 제조,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등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35건으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 합병 등 2건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2021년 대비 약 18% 증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위드코로나 및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